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8월

교육학석사(도덕윤리교육)학위논문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오갑천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fference Principle in Rawls

2020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오갑천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설 현 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도덕윤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오갑천

오갑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재영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철승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설현영 (인)

2020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차〉

ABSTRACT	i
1.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2. 차등의 원칙	3
1) 차등의 원칙의 3가지 특징	4
(1) 보상	4
(2) 호혜성	5
(3) 박애	7
2) 운의 중립화 문제	7
3. 노직의 비판	9
1) 소유권리론	9
2) 운의 중립화 비판	11
3) 비판의 딜레마	13
4. 차등의 원칙 옹호	15
1) 공유자산으로서의 운	15
2) 자유의지 문제	19
5. 결론	23
참고문헌	26

ABSTRACT

A Study on the Difference Principle in Rawls

Oh gab chun

Advisor : Prof. Sul Hunyoung, Ph.D.

Major in Moral and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A Theory of Justice* Rawls fundamentally criticizes the problems of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inherent in liberal society. A key part of Rawls theory is that he considers accidental conditions important in the problem of distributive justice. He thinks luck is the source of inequality at the start of life. That's why Rawls insists on "Neutralizing Luck," which means that it is fair to minimize accidental conditions. He also said that the differentials principle should be introduced to neutralize luck.

However, Rawls argument strongly emphasizes deterministic position and sociality, so it is often criticized for negative consequences that weaken human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and reduce efficiency.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 prove its legitimacy as to why the Difference Principle and Neutralizing Luck, which have not been sufficiently studied, should be achieved. To do this, based on the book, Harris's *Free Will*, I would like to reveal that any causal relationship in any accidental situation has a greater effect on our lives than effort or will.

This article will use Rawls *Theory of Justice* and Harris's *Free Will* as main research text. We will refer to a number of other related paper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Rawls Difference Principle and to explain in what aspects Nozick criticized them. And finally, we want to prove the validity of Rawls Difference Principle.

Libertarians like Nozick assumed that their talents and competencies should be rewarded. Of course, there is a reason to emphasize the individual's talents and abilities, to show that the product of an individual's effort is his own. A society based on this perspective is called a meritocratic society, and emphasis is placed on the authority and qualifications to recognize what one has achieved through the talent, competence, will and effort of a particular subject.

However, what qualities we are born with, whose family we are born in, and what circumstances we are in are involuntary areas that human choice cannot do. This involuntary domain has a huge impact on the voluntary domain. Our will is also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involuntary domains. That is why our will cannot be said to be free. Under this premise, Rawls Difference Principle and Neutralizing Luck are valid.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롤스(Rawls)는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1971)을 통하여 자유주의 사회가 내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롤스의 이론 중 핵심적인 부분은 분배적 정의 문제에서 우연적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는 우연적 여건이 인생의 출발선에서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우연적 여건을 최소화해야 공정하다는 ‘운의 중립화(Neutralizing Luck)’¹⁾를 주장한다. 그리고 운의 중립화를 위하여 차등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강한 결정론적 입장에 있으며 사회성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유의지와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다.²⁾ 필자는 해리스(Harris)의 『자유의지는 없다 *Free Will*』(2013)라는 텍스트에 근거하여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보다 우연적 여건의 인과관계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우연적 여건을 최대한 줄이자는 롤스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에서 롤스의 차등원칙은 강한 결정론적 입장과 사회성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고 효율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시작된 연구이다. 1977년 롤스의 『정의론』이 황경식에 의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뒤 이와 관련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은 약 800건에 달한다.³⁾ 이중 롤스의 차등의 원칙과 관련된 학위논문은 44건이고 학술논문은 41건이다.⁴⁾ 학위 논문의 경우 석사 학위논문은 36

1) 황경식과 김비환은 롤스의 정의론을 ‘운의 중립화’(neutralizing luck)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황경식, 「공정한 경기와 운의 중립화」, 『공정과 정의사회』, 13~46쪽 참조, 김비환, 「행운과 불운, 그리고 공정 사회」, 『공정과 정의사회』, 399~439쪽 참조.

2) 하규봉, 「롤스의 『정의론』 연구 -분배적 정의론 중심으로-」, 63쪽 참조.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 검색시스템을 통해 2020, 6월 15일 확인한 것이며 학위논문과 학술기사 카테고리에서 ‘롤스’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나온 결과이다.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 검색시스템을 통해 2020, 6월 15일 확인한 것임.

건이고 박사학위 논문은 8건이다. 롤스의 ‘운의 중립화’와 관련된 석사논문은 이현우(2012)의 「롤스에 있어서 운의 중립화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1건, 학술논문은 강용수(2014)의 「우연적 연대성에 대한 연구 -우연과 운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김상득(2005)의 「인간 유전정보와 정의의 물음」, 박상수(2014)의 「운 평등주의에 대한 비판」, 박상혁(2011)의 「자유주의 정의론에서 평등과 책임의 요구: 드워킨의 롤스 비판에 대한 응답」, 이현우(2013)의 「우연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롤스의 대처방안에 대한 검토」 등 5건이다.⁵⁾ 이 중 롤스의 운의 중립화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룬 논문은 이현우의 「롤스에 있어서 운의 중립화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뿐이다. 이처럼 롤스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등의 원칙이나 ‘운의 중립화’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에 충분하게 연구되지 않았던 차등의 원칙과 운의 중립화가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그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해리스의 『자유의지는 없다』는 텍스트에 근거하여 노력이나 의지보다 어떠한 우연적 여건의 인과관계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글은 롤스의 『정의론』과 해리스의 『자유의지는 없다』를 주 연구 텍스트로서 삼을 것이다. 그 외 다수의 관련 논문들을 참고하여 롤스의 차등의 원칙의 특징을 밝히고 노직이 어떠한 측면에서 롤스를 비판을 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롤스의 차등의 원칙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차등의 원칙과 최소수혜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의 세 가지 특징인 보상, 호혜성, 박애를 살펴보고 운의중립화를 주장하는 이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노직이 소유권리론을 주장하며 어떻게 롤스를 비판하였으며, 노직의 이론이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차등의 원칙으로써 운의 중립화를 주장하려고 했던 롤스 이론의 타당성을 해리스의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텍스트를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논문의 요약 및 롤스의 분배적 정의가 현대 사회에 관하여 어떤 의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 검색시스템을 통해 2020, 6월 15일 확인한 것임.

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차등의 원칙

롤스는 사회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다른 가치관, 계층상의 위치, 사회적 지위, 지능, 소질, 능력 등의 다양한 차이점으로 인해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롤스는 이러한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적 정의관이 아닌 절차주의적 정의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롤스는 정의를 공정성으로 이해하고 계약당사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원초적 입장과 그 속에 포함된 여러 조건들을 구상한다. 이를 통해 정의의 두 원칙을 도출한다. 롤스가 제시한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며 제2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다. 그는 제1원칙을 제2원칙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자신이 자유주의자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유라는 권리가 지나치게 보장되어 사회체제를 무너뜨리게 될 경우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⁶⁾ 이것은 롤스가 주장하는 자유주의가 자유지상주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롤스가 자유지상주의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은 제2원칙 중 차등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은 경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안된 개념이다. 그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⁷⁾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롤스는 재산 및 소득의 평준화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재산 및 소득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성하기 위해서는 “최소수혜자(least advantaged human beings)의 기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⁸⁾고 주장한다.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두 가지의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최소수혜자의 기대치가 실제로 극대화된 경우이다. 이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변화시켜도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더 이상 향상될 수 없을 경우이다. 롤스는 이러한 경우를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라고 한다.

6) 『정의론』, 330쪽 참조.

7) 같은 책, 106쪽.

8) 같은 책, 132쪽.

둘째, 나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보다 불리한 사람들의 복지를 이루도록 공헌할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만일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감소될 경우에는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경우이다. 그렇다고 해서 최대치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라고 할 수 있으나 최선의 정의로운 체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⁹⁾

이렇게 차등의 원칙은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가장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원칙이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누가 최소 수혜자인가이다. 뷰참(Tom L. Beauchamp)에 의하면, 최소 수혜자에 관한 롤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된다.¹⁰⁾

첫째, 미숙련 노동자와 같이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의 소득과 부의 평균치 보다 그 이하를 갖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수혜자이다.

둘째,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소득이나 부가 중간치의 절반 이하를 갖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수혜자이다.

셋째,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 역사적, 자연적인 우연성 등으로부터 최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가정의 경제력과 계급적 태생이 불리한 사람들,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 등 운이 상대적으로 나빴던 사람들이 최소수혜자이다.

위와 같이 정의된 최소수혜자들의 기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차등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보상. 둘째, 호혜성. 셋째, 박애가 그 특징이다.¹¹⁾

1) 차등의 원칙의 3가지 특징

(1) 보상

롤스는 우연적 여건으로 생겨난 불평등은 부당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롤스는 진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마땅히 우연적 여건의 해

9) 같은 책, 127쪽 참조.

10) 뷰참에 대한 논의는 홍성우,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관한 고찰」 47쪽 참조.

11) 『정의론』, 151~157쪽 참조.

택을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¹²⁾ 이렇게 롤스는 평등에로의 방향성을 향해서 우연적 여건의 편향을 보상해주고자 하였다.

물론 차등의 원칙이 보상의 원칙은 아니다. 보상의 원칙에 의해 선정된 고려 사항들에 그 중심을 두었을 뿐이다. 보상의 원칙에서 이해되는 보상과 차등의 원칙에서 이해되는 보상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상의 원칙에서의 보상은 무조건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차등의 원칙에서의 보상은 무조건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다. 다른 원칙들과 비교해서 경중이 가려져야 할 조건부 원칙이다.¹³⁾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경주에서는 공정한 바탕에서 경쟁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해주도록 사회에 요구하지 않는다. 차등의 원칙에서 말하는 보상은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데 장기적 안목을 요구한다. 롤스는 교육에 재원을 할당하는 것을 예로 든다. 교육에 재원을 할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시켜주게 된다.¹⁴⁾

(2) 호혜성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의 입장을 표명한다. 이것은 상호 이익의 원칙(principle of mutual benefit)이며 단순한 상호성(mutuality)과는 구분이 된다. 호혜성이란 어떠한 규범을 준수한 자들을 자유로운 지위를 가진 존재로서 상호 평등하게 인정하고 상호 이익이 이루어지게 하는 원리다. 유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속에서 어느 하나의 집단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면 다른 하나의 집단은 불평등하게 된다. 따라서 롤스는 균형과 상호이익을 위해 호혜성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혜성의 근본이념인 평등하게 자유로운 자들 사이에서의 ‘상호이익의 원칙’은 유리한 자들을 이중으로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되며, 불리한 자들을 이중으로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협동과 공존을 위한 체계로 보기 어렵다. 협동과 공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공통된 이익’이다. 공통된 이익이 아닌 서로 다른 이익과 부당함

12) 같은 책, 151쪽 참조.

13) 이종선, 「존 롤스의 정의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59~60쪽 참조.

14) 『정의론』, 152쪽 참조.

이 주어지게 된다면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살펴 볼 수 있는 것이 ‘성적우수장학금 제도’이다. 우수한 경제적 배경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학생일수록 학업과 성적이 우수할 확률이 높게 된다. 성적이 좋은 사람은 졸업 후에도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자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된다면 이미 유리한 자에게 더 유리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호혜적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떠한 우연적 여건으로 인하여 불리해진 이로 하여금 더 큰 불리함을 이중으로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롤스는 응분의 몫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응분의 몫을 인정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연적 여건으로 인하여 유리해진 자를 이중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롤스는 상호 이익의 원칙을 연쇄관계로 설명한다. 연쇄관계란, 어떤 이득이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시킬 경우 그것은 모든 지위의 기대치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차등의 원칙이 만족될 경우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은 의미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팀과 2팀이 각자 홀로 생산하게 된다면 각각 이득을 1씩 가지게 될 것이다. 1팀과 2팀이 협동하여 전체 4를 생산하면 각각 2씩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이득을 위하여 유인구조를 설계하여 전체 7을 생산하고 1팀은 4의 이득을, 2팀은 3의 이득을 갖게 된다면, 최소수혜자 2팀은 완전히 평등한 분배보다 불평등한 분배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므로 동등자의 입장에서 볼 때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 최대 수혜자 1팀 또한 완전히 평등한 분배보다 불평등한 분배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므로 동등자의 입장에서 볼 때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 하지만 총생산량이 더 많아져서 9을 생산하게 된다고 하였을 때 그 분배의 결과가 7:2가 된다면, 2팀은 불평등의 추가적인 증가에 의해 손해를 보게 된 것과 같으므로 이것은 호혜성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과 같다. 호혜성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을 구현할 때에 상호이익을 통하여 평등 및 공정한 사회구조를 성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롤스의 이론이 효율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옳지 못하다. 롤스의 이론은 게임이론과 상당한 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합리적인 개인들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15) 같은 책, 155쪽 참조.

뿐이다.

(3) 박애

차등의 원칙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이점은 박애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박애라는 관념은 어떠한 마음의 태도이며 행동의 형태이다. 박애는 자유와 평등에 비해서 민주주의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지 못했다. 박애는 여러 가지 공공적 규약 속에서, 그리고 복종과 굴종의 방식이 없는 가운데서 명백한 사회적 존경심을 동등하게 갖는 것을 나타낸다. 박애는 시민적 우애와 사회적 연대감도 뜻한다.

롤스는 이러한 근본이념에 부합하는 정의의 원칙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차등의 원칙은 이러한 박애의 자연스러운 의미, 다시 말하면 더 못한 처지에 있는 타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더 큰 이익을 가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관념에 자연스럽게 부합한다고 말한다. 가족이란, 그 이념에서 그리고 때로는 실제에서도, 이익의 총량이 극대화되는 원칙에서 배제되는 곳이다. 가족의 구성원들은 보통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더 큰 이익을 가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이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처지가 더 나은 사람들은 더 불운한 사람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체제하에서만 더 큰 이익을 가지려하기 때문이다.¹⁶⁾

이렇게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세 가지 특징을 상정한다. 그럼으로써 최소수혜자 뿐만 아니라 최대수혜자까지 상호이익이 이루어진다. 이는 마르크스처럼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도 아니고, 노직처럼 끊임없이 최소권리론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도 아니다. 차등의 원칙에 의거하는 롤스의 사회는 서로 상생하는 사회이다.

2) 운의 중립화 문제

롤스의 차등의 원칙의 핵심은 운의 중립화이다. 그는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16) 같은 책, 157쪽 참조.

그들의 사회적·자연적 여건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시켜야 한다.”¹⁷⁾고 주장한다.

롤스가 운의 중립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여 못 갈 수도 있다. 롤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라톤을 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경기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우연적 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만약 운의 중립화를 하지 않으면 운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세대에 한정되지 않고, 다음 세대들로 이어지면서 축적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세대의 불평등한 출발선이 된다. 경제학자인 피케티(Piketty)는 『21세기 자본론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2014)에서 롤스가 지적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습 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를 향해 가고 있으며, 이미 이에 근접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¹⁸⁾

롤스의 입장에서는 운의 중립화를 하지 않고 ‘재능 있으면 출세하라’는 식의 기회균등은 원초적 불평등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형식적 기회보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심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적 편향과도 같다. 롤스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가상적 계약상황인 원초적 입장을 제시한다. 그리고 계약과정에서 운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연적 여건에 대한 무지를 요구한다. 롤스는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에 가리워진 합리적인 사람들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The maximin principle)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계약당사자들은 최소수혜자의 관점에서 불평등이 허용되더라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편제되는 대안인 정의의 2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⁹⁾

17) 같은 책, 195쪽.

18) 피케티는 자본수익률이 높으면 자본을 소유한 부자에게 유리하고, 경쟁성장률이 높으면 노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쟁성장률이 높아 임금이 연 5%씩 상승하면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자본을 축적하기 쉽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낮아 임금 상승률이 연 2~3%상승하거나 그 이하로 상승하면 자본수익률로 꾸준히 5%씩 자본을 축적하는 부자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런데 피케티의 조사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면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그에 따라 빈부격차는 더 커져왔다. 세계는 점점 출산율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상속을 통해 얻은 자본이 일을 해서 얻은 자본보다 월등하게 많아질 것이다. 피케티는 이를 세습자본주의라고 한다.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39, 117~119, 286~319, 689쪽 참조.

19) 『정의론』, 216~217쪽 참조.

롤스의 이러한 주장은 우연적 여건에 의해 갖게 된 재능과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 인간이 가진 능력, 재능, 성격 등의 자연적 자산이 도덕적으로 자의적이기 때문에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환경이나 재능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어떠한 장애를 갖고 있거나, 가난한 집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롤스는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재능과 환경에 바탕을 둔 사회적 불평등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연적 여건을 모두 ‘공유자산’으로 여긴다. 뛰어난 재능은 개인 자신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기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관리하는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지상주의적(Libertarianism) 정의관을 제시하는 노직(R. Nozick)은 롤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노직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위와 천부적 재능은 공유자산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직관에 더 가깝다.²⁰⁾

3. 노직의 비판

1) 소유권리론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관하여 그동안 많은 찬반의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명한 의견 대립을 보여주는 인물은 노직이다. 그는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Anarchy, State, and Utopia*』(1974)를 통하여 롤스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반박한다. 롤스는 사회적인 기본선을 이루기 위해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구조가 차등의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직은 정의를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은 공정한 소유권을 고유의 권리로 지닌다고 본다. 노직은 로크가 주장한 개인권을 자명한 것으로 전제한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

20) 강용수, 「우연의 최소화로서의 정의 : 운과 우연의 문제를 중심으로」, 231쪽 참조. 심용만, 「노직(Nozick)의 자유지상주의의 正義論 비판- 롤스(Rawls)의 입장을 중심으로」, 91쪽 참조.

화는 개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직에게 정의의 일차적인 과제는 개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직은 소유권리론과 이러한 권리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국가형태인 최소 국가론을 중심으로 롤스의 이론을 비판한다.

노직에 따르면, 국가 권력의 근원은 개인들 자신이 소유한 권리이다. 국가는 개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노직의 이론에서 국가란 자연권을 소유한 개인들이 합리적 이기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된 자발적 교환의 체계이다. 노직은 협동 또한 이러한 과정의 일부라고 보았다.

노직에게 정의의 제1주제는 교환의 기초가 되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경제 행위이다. 사회 전체의 분배 상태는 이차적인 정의 주제이다. 노직은 재화의 분배를 자유 경쟁 시장에 맡기는 자유방임적 태도를 지향한다. 그는 정의의 과제란 권리가 취득되고 이전되는 과정을 규정하는 일이라고 본다. 노직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개인들 자신의 가치관이 마음껏 실현될 수 있는 국가가 정의롭다. 이런 점에서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적 이념을 지닌 정의를 주장한다. 노직의 정의론의 핵심은 소유권리이다.²¹⁾

노직의 소유권리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이다. 소유권리론에 따르면, 정의의 원리가 제시되어야 할 주제는 다음과 같이 소유물과 관계된 세 개의 영역이다.

첫째, 정당한 취득의 원리이다. 어떠한 개인이 원초적 취득을 할 때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재화를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재화의 소유 권리를 지니게 된다. 그때 그의 소유상태는 정의롭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발적 교환의 원리이다. 한 사람의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어떠한 재화의 소유 권리를 지닌 다른 사람에게서 그 재화를 취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재화의 소유 권리를 지닌다. 정의의 원리에 따른 자발적 교환은 정의롭게 된다.

셋째, 교정의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정당한 원리에 따라 재화를 얻고 정의의 원리에 따라 재화가 교환되지 않는다면 그 재화의 소유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 결국 그 소유 상태는 정의롭지 못한 상태이다.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

21) 심용만, 「노직(Nozick)의 자유지상주의 正義論 비판- 롤스(Rawls)의 입장을 중심으로」, 33~34쪽 참조.

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소유상태를 교정할 원리가 세 번째 원리가 된다.²²⁾

노직은 롤스의 평등주의를 도덕적 이념으로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이념으로서 반대한다. 평등이라는 도덕적 가치는 강제적으로 실현될 근거가 없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평등은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직의 논리이다. 노직은 롤스와 달리 정의는 평등의 개념보다 자유 및 권리의 개념과 더욱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각자 다른 환경의 A, B, C의 섬에서 일하는 1, 2, 3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어느날 C의 섬에 사는 3이 낚시를 하다가 태풍에 휩쓸려 A라는 섬에 오게 되었고 그 A라는 섬이 자신의 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의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3은 자신의 C섬에 대하여 부족한 환경을 이야기하며 A섬의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한다고 하자. A가 응하지 않아 B섬에 사는 2와 함께 힘을 합쳐 강제적으로 이를 달라고 한다고 가정하자. 이 요구는 과연 정당할까? 노직에 따르면, 3이 요구할 근거는 전혀 없다. 이 요구가 도덕적 요청이라면 정당하다. 하지만 강제로 행사가 된다면 이것은 부당하게 된다. 이러한 가설적 상황은 국가조직의 범위와 강제력에 관한 노직의 견해를 잘 드러낸다.

노직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국가가 가난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 국민의 재산의 일부를 동의 없이 취하는 행위는 국민의 소유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소유권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그의 천부적 재능, 환경, 성격과 같은 우연적 여건에 의해 소유하게 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리를 가지고 있다. 개인은 그 자신만이 자신에 대한 소유권자이다. 이 권한은 타인에 의해 공유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공유되어서도 안 된다.²³⁾ 정의의 기준은 분배의 공정성이 아닌 권리의 유무와 관계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노직의 주장이다. 노직에 의하면, 소유의 상태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처럼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었다. 모든 소유의 상태는 개인이 가지는 소유 권리로서 정당하게 성립되었다면 그 자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강제력을 가지고 재분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2) 운의 중립화 비판

22) 같은 글, 34~42쪽 참조.

23) 같은 글, 86~87쪽 참조.

노직은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부당하며, 자신의 소유권리론은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정의에 관한 두 가지 기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소유물이 어떻게 취득되었는지에 대한 과거의 과정, 역사,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를 때, 정의의 원리는 역사적 원리와 비역사적 원리로 구분된다. 또 다른 기준은 소유물의 분배상태가 개인들 간의 우연적 차이와는 상관없이 오직 사회전체의 분배상태가 지니는 정형, 또는 구조가 어떠한 지에 관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를 때 정의의 원리는 정형적 원리²⁴⁾와 비정형적 원리로 구분된다.²⁵⁾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의의 원리들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① 역사적이고 정형적인 원리, ② 역사적이고 비정형적인 원리, ③ 비역사적이고 정형적인 원리, ④ 비역사적이고 비정형적인 원리. 노직은 이와 같은 정의의 원리들 중 정형적인 원리를 3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역사적 소유개념의 권리를 도출하지 못한다. 둘째, 개인의 자유와 상충한다. 셋째, 재산권을 침해한다. 노직은 이러한 이유로 정의의 원리들 중 정형적인 원리가 포함된 ①과 ③을 제외한다. 노직은 남은 ②와 ④ 중 비역사적 원리인 ④ 또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직은 비역사적 원리는 개인의 재산 상태나 사회전체의 분배상태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발생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원리는 개인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전체의 분배상태 구조가 어떠한지만을 고려한다. 하지만 노직은 한 개인의 소유상태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오직 역사적 절차의 정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노직은 역사적이고 비정형적인 원리가 가장 정의로운 원리이라고 주장한다.²⁶⁾

노직은 자신이 주장하는 소유권리론은 역사적이고 비정형적인 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롤스가 주장하는 차등의 원칙은 비역사적이고 정형적인(중국 결과적) 원리라고 해석한다. 노직이 보기에 롤스는 원초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자연적 재능을 무시하고 소유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어떤 원칙을 수립해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은 분배의 대상으로만 살펴보아야 한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역사적 원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연적 여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직이 봤을 때 롤스의 차등의

24) 정형적인 원리는 현 시간 단면의 원리와 중국결과(상태)적 원리로 구분된다. 현 시간 단면 원리는 현시점에서 사회 전체의 분배 상태가 지닌 정형을 묻는 반면 중국결과적 원리는 소정 기간의 경제활동이 경과한 후의 결과에 주목한다. 문우일, 「로크와 노직의 財産權에 관한 基督教 倫理的 批判」 62쪽 참조.

25) 같은 글, 61쪽 참조.

26) 같은 글, 62~63쪽 참조.

원칙은 필연적으로 비역사적이고 정형적인 원리일 수밖에 없다.

노직은 비역사적이고 정형적인 원리로 해석된 롤스의 이론을 칸트적 직관에 의거하여 비판한다. 노직의 칸트적 근거에 대한 진술은 “개인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한 소정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이나 집단도 개인에 대해 행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다.”²⁷⁾라고 그의 책 서론부터 일관되게 나타난다. 노직은 개인들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며, 타인의 권리를 위해서 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권리에는 우연적 여건에 의해서 가지게 된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이것은 타인의 ‘생명, 기회의 평등과 같은 권리들’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²⁸⁾ 하지만 롤스의 이론은 소유물에 대한 간섭을 그 바탕으로 한다. 노직이 볼 때 이러한 간섭은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침해이다. 노직의 입장에서 롤스의 이론은 자율적이고 천부적인 권리에 대한 직관을 반영할 수 없으며, 칸트적인 인격과 충돌한다. 때문에 노직은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이상적인 정의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²⁹⁾

3) 비판의 딜레마

노직은 소유권리론을 주장하면서 섬의 예시를 들었다. 노직은 이를 통해 소유권리론이 롤스의 차등의 원칙보다 우리의 도덕적 직관들에 더 잘 부합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직이 상정하는 섬의 예시는 사회라는 형태를 제외하고 설정한 예시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와 관계를 맺고 태어난 존재이다. 사회를 통하여 공간적으로는 당대인들과 상호 의존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앞선 조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 속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룩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육체와 그를 구성하는 모든 유전적 소질은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거기에 담긴 모든 관념은 인류의 오랜 경험과 노력의 결정체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과거와 현대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우리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활동의 결과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소산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대의

27) 로버트 노직, 『자유주의의 정의론-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6쪽.

28) 이현우, 「우연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롤스의 대처방안에 대한 검토」, 213쪽 참조.

29) 같은 글, 212~213쪽 참조.

무수한 인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빛을 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유기적 유대관계에 묶여있다. 대부분의 소유물 또한 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온전히 개인의 노동으로 생산된 소유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개인의 소유상태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를 오로지 역사적 절차의 정의 여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노직의 정의에 관한 기준점 자체가 잘못되었다. 타인이 있음으로 우리의 생활이 있고,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사회에 진 빛을 다시 갚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의무이다.³⁰⁾

또한 노직은 행위자들이 갖게 되는 우연적 여건들이 모두 침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직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칸트적인 자율적 행위자를 엄두에 둔다. 하지만 노직이 주장하는 행위자는 우연적 여건을 정의관의 요소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칸트적인 자율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 칸트적인 자율적 행위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앞서 현존하며 이러한 관계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개인적인 존재이다.

노직의 주장처럼 역사적 정의관만 합당하려면 우연적 여건에 지배받으면서도 나름의 책임을 다하려는 워커(Walker)의 행위자와 유사한 행위자를 가정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워커도 밝혔듯이 우연적 여건이 포함된 행위자는 그 정의상 순수한 자율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³¹⁾ 이점은 노직의 행위자가 칸트가 도덕적 필요조건으로 ‘순수한 행위자’를 요청한다는 점과 상충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직은 칸트적 직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직은 자신의 행위자를 가정할 때 칸트가 해명한 실천 이성의 정식화 중 ‘보편화 가능성’과 ‘목적 왕국의 입법자’와 같은 해명은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해명에만 집중해 칸트를 재해석한다.³²⁾ 특히 노직이 가정한 행위자는 칸트가 주장하는 자율적 행위자의 근간이 되는 선의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선의지를 강조하는 칸트의 주장은 운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순수한 행위자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직이 상정하고자 하였던 칸트적 행위자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행위자이다. 인간의 정체성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정의되고 형성된다.³³⁾ 칸트의 행위자처럼 자신이 처해있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초연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행위자가 아니다. 노직의 이론

30) 황경식, 『정의론과 덕윤리』, 106~109 참조.

31) 워커에 대한 논의는 이현우의 「우연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롤스의 대처방안에 대한 검토」 57~58쪽 참조.

32) 같은 글, 58쪽 참조.

33) 김이혜란,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한계」, 85쪽 참조.

은 존재할 수 없는 칸트의 자율적 행위자를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왜곡시켜 적용한 이론이다. 그렇다고 칸트적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롤스의 이론을 비판할 근거와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킬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노직의 이러한 딜레마는 그의 이론을 분배에 대하여 부당한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으로 만든다.³⁴⁾

4. 차등의 원칙 옹호

1) 공유자산으로서의 운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재능과 같은 우연적 여건을 모두 공유자산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롤스의 주장은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로부터 자아의 정체성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타고난 재능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 생겨난 생산물을 공동의 자산으로 삼는 것은 불가양과 불가침이라는 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을 그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다는 게 노직의 주장이다.³⁵⁾

하지만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인간의 자아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개인이 어떠한 사회에서 태어난 것은 우연적 사실이며, 그러한 우연적 사실이 인간의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나의 소유와 나를 하나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재능, 성격 등은 우연적 여건으로 결정된 나의 소유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연적 여건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³⁶⁾ 예를 들어 어떠한 개인이 사고를 당하여 재능이나 성격이 변화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아정체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아정체성은 우연적 여건으로 만들어진 개인의 특징들만을 자아정체성이라 규정할 뿐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부나 직위가 자유의지에 의한 자발적 선택과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분의 몫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

34) 이현우, 「롤즈에 있어서 운의 중립화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57~58쪽 참조.

35) 이종은, 「롤즈와 공동체주의」, 5~6쪽 참조.

36) 전제아,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과 교육적 의미 :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29~32쪽 참조.

은 인과적인 요인들이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주어서 행동의 방향이나 경향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도덕적 행위자로서 인간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선택할 때 자유의지가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선택한 행동에 대해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⁷⁾ 이런 견해를 형이상학에선 비결정론이라고 한다. 비결정론에서 행위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이다.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비결정론의 입장에서 의무감, 책임감, 노력, 의지 같은 개념들을 강조한다.

반면 쉐플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부 운 평등주의 저술들은, 선택되지 않은 환경의 범주로 간주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연적인 모습의 인과적 질서이고 그런 인과적 질서는 개인의 통제 하에 있지도 않고 또한 개인의 개성을 함축하지도 않는 반면에, 자발적인 선택은 완전히 개인의 통제 하에 있으며 개별 행동의 동인(動因)의 순수한 표현을 구성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다.”³⁸⁾ 이와 같은 쉐플러의 견해에 따르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환경이 개개인의 행동 대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쉐플러는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과의 정의를 분석하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될 경우 그 결과는 어떤 것이든 공정하고 정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절차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한다. 롤스가 이러한 절차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함에 있어 우연적 여건은 꼭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롤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더 큰 천부적 재능과 그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우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는 협동 체제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최초 출발 위치에 대해 응분의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듯이, 천부적 자질의 배분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역시 응분의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우월한 성격에 대해 응분의 자격을 갖는다는 주장 역시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그의 성격은 대체로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는 훌륭한 가정이나 사회적 여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³⁹⁾ 롤스의 이러한 주장과 같이 인간은 유전적, 기질적, 사회경제적 여건과 같은 우연적인 외부 환경에 의해 성격과 정체성이 형성되며, 이러한 기반위에 형성된 주체로서 선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

37) 박상수, 『경제철학』, 139쪽.

38) 박상수, 「운 평등주의에 대한 비판」, 129쪽에서 재인용.

39) 존 롤스, 『정의론』, 155쪽.

러한 우연적 여건을 간과하였고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만을 중요시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위와 부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롤스의 주장과 같이 우연적 산물이라면 노직의 이론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직위와 부를 획득하는 가장 대중적이고 손쉬운 방법이 학업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학업의 성취도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번스타인의 주장에 따르면 학업의 성취도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보다는 우연적 여건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번스타인(Bernstein)은 특정한 사회계층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방식이 사람들이 현상을 접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그것을 해석하고 구성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어법이론을 주장한다. 그는 양육과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환경이 계층간의 언어적 어법 차이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호킨스(Hawkins)의 연구에서 잘 나타난다. 호킨스는 영국의 중산층과 하류층 5세 어린이들에게 일련의 사건이 그려진 네 장의 그림을 보여줬다. 그 후 그 그림들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 각각의 그림은 다음과 같다. 장면 1은 소년 몇 명이 럭비공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장면 2는 소년들이 럭비공이 유리창을 깨뜨리는 모습, 장면 3은 한 남자의 위협적인 몸짓이 그려진 모습, 장면 4는 한 여자가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보는 와중에 아이들이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네 장의 그림을 본 하류층의 아이들과 중류층의 아이들은 각자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⁴⁰⁾

“하류층 아이들의 진술 : 그들이 럭비공 놀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찼는데 거기로 향했다... 그것이 유리창을 깨뜨렸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고함을 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밖을 내다보고는 야단치고 있다. 중류층 아이들의 진술 : 남자 아이 셋이 럭비공 놀이를 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공을 찬다. 공이 창문을 향했고... 공이 유리창을 깨뜨렸다. 아이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나와서 그들에게 고함을 쳤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리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망을 가고 한 여자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소년들에게 야단을 치고 있

40) 신재영, 「번스타인 사회언어학의 학제적 전개와 한계」, 4~5쪽 참조.

다.”⁴¹⁾

위와 같은 두 부류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진술은 의미가 맥락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의미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진술이 자기중심적이며 의미가 너무 암시적이다. 반면 두 번째 진술은 의미가 맥락에 구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의미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명시적이다. 번스타인은 하류층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제한된 어법이라고 명시하였고, 중류층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정련된 어법이라고 명시하였다.⁴²⁾

번스타인은 두 부류의 언어가 다른 이유를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찾는다. 중류층의 부모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자녀의 견해를 중시하는 어법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자녀의 내적태도와 행동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녀들의 내재적 통제감이 형성되도록 양육한다고 보았다. 반면 하류층의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어법을 선호한다고 보았다. 또한 외적 규범에 대한 순응을 중요시함으로써 자녀들도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을 외부에 두려는 경향을 띤다고 보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하류층의 자녀의 경우는 제한된 어법이 발달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류층의 자녀일 경우는 제한된 어법과 정련된 어법이 모두 발달될 가능성이 높다.⁴³⁾ 이러한 번스타인의 주장은 우연적 여건이 우리의 성격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롤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련된 어법과 제한된 어법은 학습과 관련하여 큰 차이를 낳는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언어를 통하여 전수한다. 번스타인에 따르면 학교가 새로운 지식을 전수하려면 누구나 이해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맥락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인 의미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주로 정련된 어법을 사용한다. 중류층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법을 학교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새로운 지식을 전수 받는데 거부감도 없고 이해하기도 쉽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교한 어법을 사용

41) 같은 글, 5쪽.

42) 같은 글, 6쪽 참조. 제한된 어법은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를 가지고 통상적이지 않은 어휘나 생각을 담는다. 또한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구체적인 관계에 한정된 언어를 사용하는 어법이다. 반면 정련된 어법은 삼입구가 없고, 선행지식이 없어도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완성된 형태로 제시한다. 또한 의미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띄는 언어를 사용하는 어법이다.

43) 같은 글, 8~10쪽 참조.

하지 못하는 하류층 아이들에게 정교한 어법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학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하류층 아이들은 추상적 개념을 어려워하며, 언어적 지능검사의 점수가 낮고, 언어 관련 교과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학교에서의 성취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는 모두 제한된 어법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다.⁴⁴⁾ 이것은 학업의 성취도가 우리의 선택과 노력보다 우연적 여건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이다.

번스타인의 주장처럼 사회계층은 교육기회 분배에 강한 영향을 준다.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에서 조사한 부의 직업지위별 자녀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시골 보다 도시에 살수록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부모님의 직업지위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 수준이 또한 달라졌다. 이는 류방관·김성식이 조사한 대학유형별 부의 직업지위 상황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부모의 직업지위가 상위권에 속하는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은 부모의 직업지위가 하위권에 속하는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보다 10배가량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신입생 보호자 학력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보호자의 학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학력이 대퇴·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다.⁴⁵⁾ 이렇게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그리고 학력은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소들이 롤스가 중립화하고자 했던 우연적 여건이다.

이러한 근거에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부와 직위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6이라는 선택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1이라는 선택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6이라는 선택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6이라는 선택지 안에서 선택과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1이라는 선택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1이라는 선택지 안에서만 선택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결국 6과 1을 가진 사람의 결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가 평등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선택과 노력은 우리의 앞선 경험들로 이루어진 뇌의 인과적인 상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한 자유의지는 인간 행동양식의 근원이 아니다.

2) 자유의지 문제

44) 같은 글, 9~10쪽 참조.

45) 김신일, 『교육사회학』, 270~271쪽 참조.

자유의지는 없다고 주장하는 해리스에 따르면, 자유의지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배경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⁴⁶⁾ 만약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에 커피나 녹차를 한두 잔 마시면서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어느 날은 커피를 두잔 마셨고 또 다른 날은 녹차를 한잔 마셨다. 이 사람은 왜 어느 날은 커피를 마시고 어느 날은 녹차를 마셨을까? 이것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해리스는 이러한 결정은 단지 무의식적 산물이며, 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해리스는 자유의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얼마든지 원하는 사고 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앞선 사건들의 산물이며 그 사건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잠시 시간을 들여 당신의 다음 결정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날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부모님을 선택한 적도 없고, 생년월일이나 출생지를 선택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유전자이나 뇌의 발전에도 아무런 통제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의 뇌는 일생동안 주입되어온 성향과 신념에 기초하여 선택을 내리고 있다. 더욱이 그런 성향과 신념은 당신의 유전자,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된 이래 이루어진 신체 발육 상태, 타인과 사건들과 아이디어들과 가진 상호작용 등에 의해 만들어졌다.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는가? 물론 지금 당장 당신은 원하는 것을 할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당신의 욕망은 어디서 유래하는가?”⁴⁷⁾ 해리스의 주장처럼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환경은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인간의 선택, 의지, 노력 등의 일생 전부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존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우연적 여건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롤스에 따르면, 이러한 분배 방식의 가장 뚜렷한 부정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당한 근거가 없는 우연적 여건으로 인해서 배분의 몫이 부당하게 결정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우연적 여건이 그대로 방치된 사회는 문화나 도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연의 우연적 여건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복불복의 사회이다. 여기서 운이나 복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다. ⁴⁸⁾

해리스가 제시한 몇 가지의 실험에 의거하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선택과 노력이 우리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실험은 생리학자 리벳(Libet)의 실험이다. 리벳은 실험을 통해 인간이 자신이 움직이기로 결심했다고

46) 샘 해리스, 『자유 의지는 없다』, 12쪽 참조.

47) 같은 책, 52쪽.

48) 황경식, 『정의론과 덕윤리』, 145~148쪽 참조.

느끼기 300Millisecond 전부터 뇌의 운동피질에서 활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뇌파검사(EEG)를 사용해서 보여준 것으로 유명하다. 리벳은 피험자에게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설치한 뒤 피험자에게 버튼 하나를 준다. 그 후 피험자가 버튼을 누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면 버튼을 누르라고 요구한다. 만약 자유의지가 있다면 피험자의 의지 → 뇌의 전기 신호 → 행동이라는 메커니즘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실험에서 피험자가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기 이전에 대뇌의 운동영역에서는 이미 손가락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준비전위⁴⁹⁾라고 불리는 뇌파를 내보내는 것이 실험 장치에 의해 측정 되었다. 한 마디로 생각과 마음가짐에 선행하여 뇌가 이미 움직인 것이다. 이는 의지 → 뇌의 전기 신호 → 행동이라는 기존의 자유의지의 메커니즘을 뇌의 전기신호 → 의지 → 행동이라는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⁰⁾

또 다른 연구소에서는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장치(fMRI)를 사용하여 리벳의 연구를 확장했다. 피험자들은 스크린에 나오는 무작위 순서의 글자들로 구성된 시계를 바라보며 두 개의 단추 중 하나를 눌러야 했다. 그들은 어떤 단추를 누를지 결정내린 순간 어떤 글자가 보이는지 보고했다. 실험자들은 피험자들이 의식적으로 내리기 7~10초전에 어떤 결정을 할지에 관한 정보를 뇌 부위 두 부분에서 발견했다. 더 최근에는 뇌 피질에서 직접 촬영한 정보로 피험자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인지하기 700밀리세컨트 전에 뇌피질에서 단 256개의 뉴런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 피험자가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80퍼센트의 정확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⁵¹⁾ 이러한 실험들은 우리의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진 ‘뇌의 생화학적인 작용’이라는 것이다.

해리스는 이러한 실험들이 우리가 우리 행동의 의식적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기 전 짧은 순간에(내키는 대로 행동할 완벽한 자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의 뇌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이미 결정해놓았다는 것이다. 그 후 우리는 이 ‘결정’을 의식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 믿어버린다고 한다. 해리스는 만약 인간의 정신이 영혼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음은 변

49) 준비전위는 인간이 어떤 동작을 행동하기 전에 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나타내는 전기적 신호의 변화이다.

50) 샘 해리스, 『자유 의지는 없다』, 16쪽 참조.

51) 같은 책, 16~17쪽 참조.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 뇌의 무의식적 생리 작용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나, 비만, 기도를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⁵²⁾

해리스는 선택과 노력, 그리고 추론과 의도는 우리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것들은 그 자체가 어떤 원인으로 얽힌 사슬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이 사슬은 의식적인 자각에 선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혀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그 무엇이다. 우리가 내리는 의도, 결정, 목표, 노력, 의지력 등은 뇌의 인과적 상태다. 이 상태는 특정 행위들을 이끌고, 그런 행위들은 세상에 결과물로 나타난다.⁵³⁾ 만약 가난한 사람의 행동이 신경 활동의 특정 패턴에 의해서 결정되고, 앞선 원인들의 산물로서(아마도 나쁜 유전자와 가난한 환경, 불행한 유년기,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좌절감, 장애, 불면 등의 불운이 동시에 발생하는 바람에) 발생한다면, 그 남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과 선택을 하지 않았기 가난해졌다고 말할 수 없다.

최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맥테이드(McDade) 박사 연구팀은 ‘가난이 유전체에 광범위하게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원들은 낮은 사회경제적인 형편이 DNA메틸화의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발현될 때 ‘DNA 메틸화 현상’이 일어난다. DNA메틸화는 유전자를 형성하는 중요한 후천적인 표지이다. 연구팀은 “1,500개 이상의 유전자에서 2,500개 이상의 사이트에 흔적을 남긴다”고 발표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가난은 유전자의 10%에게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다.⁵⁴⁾ 이러한 연구 발표는 우연적 여건이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해리스의 주장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자유지상주의가 주장하는 도덕적 응보는 모두 불공평한 것이 된다. 불평등은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연적 여건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다. 롤스는 제도적 차원에서 이러한 우연적 여건을 상쇄하는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형식적인 기회균등이 아닌, 실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당 당사자들이 공정하다고

52) 같은 책, 16~21쪽 참조.

53) 같은 책, 12~50쪽 참조.

54) 이 연구결과는 『미국 피지컬 인류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에 발표되었다. 심재율, “가난은 DNA에 흔적을 남긴다”, 참조.

느낄 수 있는 공정한 기회균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날 같은 시험을 보는 것만 아니라, 어떤 선행학습도 어떤 이전의 불평등 상황도 없는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공정한 기회균등이다. 그러나 공정한 기회 균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순간 개인의 선택이 개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이 아닌 한 개인의 선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⁵⁾

여기서 차등의 원칙이 중요해진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실에서 생기는 불평등을 상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의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수혜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원칙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등의 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완하는 원칙으로 금전적 보상이 아닌 기회 제공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한다. 이것은 기회균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 차등의 원칙의 적용대상인 최소수혜자들은 항상 가변적이다. 특정 체제의 평가방식에 따라 최소수혜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잣대로 최소수혜자를 규정할 수 없다. 오히려 체제 또는 환경 변화가 가져오는 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⁵⁶⁾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하여 우연적 여건을 사적으로 점유하지 않음으로써 불평등은 언제나 호혜적인 방향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선택으로 극복될 수 없었던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개인의 재능과 역량을 높인다. 그럼으로써 최소수혜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득이 되는 상호성이 전제가 되는 분배적 정의를 말하고 있다.

6. 결론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강한 결정론적 입장에 있으며 사회성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유의지와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다. 본 논문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보다 어떠한 운의 인과관계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해리

55) 이양수, 「기회균등과 실력주의 사회」, 171~172쪽 참조.

56) 같은 글, 172쪽 참조.

스의 『자유의지는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각자의 재능과 노력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대상으로 가정한다. 물론 개인의 재능과 역량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한 개인이 행한 노력의 산물이 자기 자신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관점에 입각한 사회는 실력주의 사회로 불리면서 특정 주체의 재능, 역량, 의지, 노력으로 얻어 낸 것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권한과 자격이 강조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이고 둘째는 우연적 여건의 영향력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와 관계를 맺고 태어난 존재이다. 사회를 통하여 공간적으로는 당대인들과 상호 의존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앞선 조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 속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룩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과거와 현대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대의 무수한 인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빚을 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유기적 유대관계에 묶여있다. 때문에 개인의 소유물은 온전하게 자신만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누구의 가족으로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인지는 인간의 선택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연적 여건이다. 이러한 우연적 여건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우리의 의지 또한 우연적 여건의 영향 하에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전제를 무시하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자발적인 측면에만 주목하면 동등하지 않는 것을 동등하게 보는 잘못을 범하게 되며, 기회 균등이념을 기득권의 옹호수단으로 삼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하여 우연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 보상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무조건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모든 불리한 조건을 똑같이 해주도록 사회에 요구하지 않는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요구한다. 이렇게 최소수혜자의 기대치가 향상되었을 때 개개인이 서로 각 각 생산할 수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물을 사회적으로 산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1929년에는 경제 대공황, 2008년에는 세계 금융 경제위기가 발생했

다. 이와 같이 두 차례 경제위기를 겪었던 당시 미국에서는 빈부격차가 극에 달해 있었다.⁵⁷⁾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면 얼마나 큰 피해가 생기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A.I, 공장자동화시스템, 무인자동차 등이 발달함으로써 자본가들이 더 이상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본을 축적하는 세상, 노동 없이 성장하는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하여 만약 또 다시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을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롤스의 정의론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지평을 열어주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57) 이주형, “갈수록 커지는 빈부간의 격차” 참조.

참고문헌

1. 롤스의 저서

존 롤스,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2. 단행본

김신일,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2015.

로버트 노직, 『자유주의의 정의론-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강성학 옮김, 대광문학사, 1991.

박상수, 『경제철학』, 제주대학교출판부, 2003.

샘 해리스, 『자유 의지는 없다』, 배현 옮김, 시공사, 2012.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장경적 옮김, 글항아리, 2014.

황경식, 『정의론과 덕윤리』, 아카넷, 2015.

황경식 외 9명 공저, 『공정과 정의사회』, 서울:조선뉴스프레스, 2011.

3. 학위논문

김이혜란,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한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5.

문우일, 「로크와 노직의 財産權에 관한 基督教 倫理的 批判」,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심용만, 「노직(Nozick)의 자유지상주의 正義論 비판- 롤스(Rawls)의 입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겨 교육대학원, 1999.

이종선, 「존 롤스의 정의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대학원, 2007.

이현우, 「롤즈에 있어서 운의 중립화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전제아,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과 교육적 의미 :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하규봉, 「롤스의 『정의론』 연구 -분배적 정의론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4. 잡지수록 논문

강용수, 「우연의 최소화로서의 정의 : 운과 우연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제 31집(219-241), 한국해석학회, 2013.

박상수, 「운 평등주의에 대한 비판」, 『제도와 경제』 8:2 (113-134), 한국제도경제학회, 2014.

신재영, 「번스타인 사회언어학의 학제적 전개와 한계」, 『國際言語文學』, Vol.- No.24, 國際言語文學會, 2011.

이양수, 「기회균등과 실력주의 사회」, 『시민인문학』 제28집(151-189),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이중은, 「롤스와 공동체주의」, 『사회과학연구』 Vol.28 No.2,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이현우, 「우연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롤스의 대처방안에 대한 검토」, 『철학사상』 제50집(201-230),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3.

홍성우,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관한 고찰」 『사회사상연구』 제4집 (31-62), 원광대학교 사회사상연구소, 1994.

5. 신문

심재율, “가난은 DNA에 흔적을 남긴다”, 『데일리비즈온』, 2019년 4월

이주형, “갈수록 커지는 빈부간의 격차”, 『경남일보』, 2013년 9월